



2

1 영화 '게이샤의 추억' 촬영장소로 유명해진 교토 남부 후시미야리 신사의 도리이(기둥문) 길
2 고류지 목조미륵반가상
3 어느 방향에서 봐도 15개 돌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료안지 석경

누군가는 일본 관광지에서 가면 한국과 똑같아서 볼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7개를 보유한 일본문화의 정수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 셈이다. 일본 국보 1호인 목조미륵반가상을 보기 위해 고류지(廣隆寺)로 갔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봤던 금동미륵반가상과 아주 많이 닮은 듯했다. 적송으로 만들어진 목조미륵반가상의 얼굴은 가름하고, 지그시 감은 눈과 미소 띤 입은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인간 실존의 최고 이념이 표현된 가장 철학적인 예술품"이라고 독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목조미륵반가상을 극찬했다고 한다. 58년 전 한 대학생이 이 불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흠모하는 마음에 껌안다가 손가락 약지가 부러지는 일을 겪기도 했다. 야스퍼스가 한국의 금동미륵반가상을 봤다면 어떻게 평했을까 궁금해졌다. 그런데 고류지를 창건한 이는 신라 출신인 진희승이었다. 고류지에서 서쪽 외곽으로 더 가면 '비람의 산'인 아라시야마가 나온다. 이 산을 감싸고 흐르

는 강이 가쓰라가와다. 이곳은 헤이안 시대(794~1185년) 왕족과 귀족의 별장이 있던 곳으로, 교토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라고 한다. 가쓰라가와를 보고 느낀 감정이 고향에 온 것 같은 푸근한 마음이라서 무슨 조화인가 싶었다. 강 위의 도계초교를 걸으면서 마치 나무다리를 건너는 착각을 했다. 오래된 나무다리를 콘크리트로 재건축했지만 다리간간과 버팀목을 나무로 만들어 원래 모습을 살린 것이 눈에 들어왔다. 5세기 신라 도래인들은 큰비가 오면 범람하는 이곳에 둑을 쌓고 수로를 조성했다고 한다. 저수지를 만들어 '천년고도'(古都) 교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신라인이 일조했던 것이다. 강을 따라 가메야마공원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우중람산(雨中嵐山)이란 제목의 사비를 만났다. '소슬비 내리고 안개는 짙는데, 구름 뚫고 비친 한 줄기 빛/ 볼수록 더욱 아름답고 고우네/ 세상 모든 진리는 좇을수록 알기 어려워도/ 우연히 본 한 점의 광명/ 참으로 곱고 아름답도다.' 열아홉 살에 미래를 꿈꾸며 일본 교토에서 짧은



3

'천년고도' 교토(京都) 거리를 걷다

글 · 사진 정동현



"간사이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9월 초 초강력 태풍 '제비'가 동반한 폭우로 활주로까지 침수됐던 일본 간사이공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한 모습으로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JR하루카 특급열차 편으로 단숨에 목적지인 교토(京都)로 달려갔다. 여행의 즐거움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 골목길에서 차와 마주쳤다. 운전자는 당연하다는 듯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습관대로 운전자에게 두 차례나 양보하는 제스처를 보냈지만 나만 뻔뻔해졌다. 10월 중순 교토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임을 확실히 알게 됐다.



1

유학을 했던 중국 초대총리 저우언라이가 아라시야마에 올라 노래한 것이다. 강바람을 맞으며 거닐다가 마시는 커피는 달콤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엔 단풍이 교토를 절경으로 만드는 아라시야마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향기로웠다. 사찰 덴류지(天龍寺)를 지나자 촘촘하고 곧게 뻗은 대나무들이 숲을 이룬 치쿠린이 나왔다. 목에 수건을 두른 젊은이들이 고는 인력거에 몸을 맡기곤 대나무 숲으로 빨려 들어갔다. 땀을 스치며 지나는 바람은 신선한 공기가 되어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바람 소리는 파도가 되고 내 마음은 청량해졌다. 투명기둥 600개가 세워진 '기모노의 숲'은 란덴아라시야마역 플랫폼을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역 승강장 한쪽에 있는 족욕탕은 많이 걸어 지친 여행객들의 피로를 아라시야마 온천수로 풀어준다. 료안지(龍安寺)로 향하는 게이후쿠

전차를 탔다. 교토 시내 노면 위를 달리는 한 칸 짜리 트램인 란덴전차였다. 교토 북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운행하는 이 전차를 타고 창밖에 펼쳐지는 소박한 동네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 1397년 건축된 킨카쿠지(金閣寺)는 화려한 모습의 장관이었다. 앞에 있는 교코지 연못에 투영된 금빛은 한층 환상적이었다. 킨카쿠지는 거듭된 화재를 겪었지만 교토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됐다. 1950년 한 젊은 행자승이 "사찰의 속물주의에 염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한다. 그 후 50년에 걸쳐 복원 작업을 해왔다. 600년 이상 건널 수 있는 가로세로 10cm의 금박 20만 장을 접착력 강한 옷칠로 붙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액 표시가 없는 입장권에는 붓글씨체로 '행운을 부르고, 가내안전을 기원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 번 쓰고 버리

- 1 대나무가 숲을 이룬 치쿠린
- 2 석양에 금빛이 환상적인 킨카쿠지(金閣寺)
- 3 킨카쿠지 입장권 4 후지산을 닮은 원추형 모래더미 고게쓰다이와 긴카쿠

는 입장권이 아니라 소장용 행운권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말로 은각사로 불리는 긴카쿠지(銀閣寺)는 금각사(킨카쿠지)와는 다른 맛을 주었다. 들어가는 길 양옆으로 키 큰 동백나무 생울타리가 성벽처럼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압권이었다. 사찰의 본전까지 가려면 참도(參道)를 거쳐야 했다. 세속에서 선(禪)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경내의 하얀 모래 마당인 긴사덴은 정원에 물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한쪽에 우뚝 서 있는 원추형 모래더미인 고게쓰다이는 일본인들이 신성시하



2



3

는 후지산을 닮은 것이 특징으로 다가왔다. 기모노 차림에 조리 신발을 신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교토 거리를 걷는 체험도 해봤다. 신발이 맞지 않아 발가락이 아팠지만 색다른 경험이었다. 심장에 열이 날 정도로 빨리 걷다 보니 금방 허기가 느껴졌다. 물 좋은 교토는 두부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실제로 먹어보니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두부 맛 기억과는 다른 세계를 맛볼 수 있었다. 교토는 골목마다 감성이 가득한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국 가디언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톱 10'으로 뽑힌 게이분샤도 그중 하나였다. 게이분샤는 교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이치조지거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책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서점 안에는 교토의 문화를 보여주는 소품들이 많았는데, 개성 있는 작은 가게가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했다. 오래된 동네 공중목욕탕은 멋진 카페로 변신했다. 카페 출입문 위의 예쁜 온천마크가 간판 역할을 하고, 실내 벽에 붙은 다이쇼시대(1912~1926)의 알록달록한 타일이 예전엔 목욕탕이었음을 증명했다. 들어서는 순간 이미 재





- 1 교토 시내를 남북으로 흐르는 가모가와 강
- 2 사라사니시진 카페의 목욕탕 간판
- 3 캡슐호텔 나인이워스 교토
- 4 철학의 길
- 5 서양식 구조물인 수로각

수로에서는 오리들이 자맥질을 하고, 커다란 잉어들이 해엄을 쳤다. 에이칸도에 닿으니 나뭇잎 색깔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조금 더 걸어 가니 담장이 없는 난젠지라는 곳에 아름다운 솔밭이 펼쳐져 있었다. 법당 옆으로 돌아서면 북

은 벽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아치형 다리를 만난다. 교토 근처 시가현에 있는 일본 최대호수 비와코의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각이다. 메이지 시대에 만든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 명소라고 했다. 일본인 나들이객들이 이 수로각을 배경으로 사진을 연방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었다.

교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가모가와 강은 교토의 낭만을 모두 품고 있다. 식민지 출신 유학생 시인인 정지용은 이곳에서 '수박 냄새 풍어 오는 저녁 물바람/ 가모가와 십릿벌에 해가 저물어...저물어...'라고 노래했다. 시인 운동주도 강가를 거닐며 대선배인 정지용의 '항수'를 되새기며 고국을 그리워했으리라. 두 천재 시인 정지용과 운동주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도시사대학 영문과에서 공부했다. 이 대학교정에는 정지용의 '압천'을 새긴 시비와 운동주의 '서시' 시비가 나란히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 가을바람이 다시 불면 나는 또다시 교토 거리를 걷고 있을 것 같다. ♣



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라사니시진 카페다. 교토에서 오래된 것은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었다. 오래됐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간 많은 이야기를 축적한 공간처럼 보였다. 어둠이 내리고 흥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기온거리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빨간 입술,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분단장한 얼굴은 영락없는 인형이었다. 그녀는 야속하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차에 타고는 출발하려다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는 손들어 인사했다. 마이코(舞妓다. 게이샤(藝者)가 되기 위해 가무와 화술을 수련하는 마이코는 교토의 살아있는 전통이라고 한다. 저 멀리 빠르게 사라져가는 마이

코의 뒷모습을 보며 교토의 신비스러운 세계로 빠져들었다. 한 번의 여행으로 교토의 많은 것을 보려는 욕심에 숙소는 잠만 자고 나오는 캡슐호텔로 정했다. 캡슐호텔은 옛것을 온전히 보존한 천년교도에서 만나는 우주 공간으로 다가왔다. 심플하고 모던한 캡슐호텔의 콘셉트는 공상 우주영화에서 봤던 공간 그대로였다. 온통 하얀색으로 된 호텔 내부를 구경하는 것도 흥미진진했다. 벌집처럼 생긴 잠자리가 좁고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관은 눈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먼 시트가 깔린 잠자리는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아늑함을 선사했다. 교토대학 철학 교수였던 니시다 기타로가 사색하며 걸었다는 '철학의 길'을 가보았다. 가을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영락없는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된다고 했다. 긴카쿠지에서 에이칸도 사찰까지 수로를 따라 이어진 2km 정도의 길이였다.